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米價緩和의 急務

一

最近 數三年以來 輸入禁止가 되여잇든 暹羅米에 對하야 政府에서는 一定한 條件附로 今秋 約二十萬石의 輸入을 許可하기로 內定되엿다는 東京電이 잇다。

暹羅米、蘭貢米、西貢米、加州米等 外國米輸入禁解에 關하야는 從來 農林、外務兩省間에 그 主張을 달리하여왓다。即 農林省에서는 米價를 騰貴식히려는 意味에서 外米輸入禁止令解除에는 어대까지든지 反對하여왓고 外務省에서 米輸出國과의 親善企圖의 意味로 原則的으로 外米輸入禁止令 解除를 主張하여왓다。이러하든次에 이番 暹羅米에 對하야 條約附의 小規模的 解禁이나마 斷行하기로 內定되엿다는것은 此에 關聯한 內外事情이 그만치 變動하엿다는것을 말하는것인가 한다。

二

昨年으로 말하면 日本內地나 朝鮮이나를 莫論하고 米穀生産은 近年에드믄 凶作이엿고 至於 滿洲粟까지도 大減收를 보게되엿다。따라서 月前에 東京期米가 最高公定價格 三十一圓五十錢을 突破한일이 잇섯고 昨今에도 依然히 三十圓臺의 高價에 肉迫하여잇다。그리고 米價가 좀처럼 떠러질것이 아니라는것은 이番 日本內地의 政府所有米 九十餘萬石拂下를 압두고 米價騰貴를 演出한 事實에 徵하야 무엇보다도 그 眞相을 如實히 알수잇는것이다。

이와가튼 高米價維持에 依하야 利益을 보게되는者는 極少數의 地主階級 및 米穀商에 不過한것이오 絕對多數의 貧民階級이 現在 米價高로 밧는困難은 實로 莫大한것이다。따라서 農林省에서 從來 米價暴落을 憂慮하고 暹羅米輸入禁止解除를 反對하던理由는 이에 解消되엿다。他面에잇서 外務省은 所謂 廣田協和外交의發動으로 對外親善의 意味에서 外米輸入禁止令 解除를 主張하고 日本內地米價에 影響을 波及치 안는 限度內로 今年가을에 泡盛、餡、織物用糊原料에 限하야 約二十萬石의 暹羅米輸入을 許可하기로 內定된 模樣이다。

三

以上과가티 暹羅米에 限하야 今秋 一定한期間(三個月)에 一時輸入을 許諾할 模樣이나 그條件이 日本內地米價에 影響이업슬限度 即 二十萬石이라는 僅少한 數量에 그用途까지 制限되엿슬뿐아니라 從來부터 暹羅米는 菓子原料 또는 工業用에 使用되엿고 一般食糧에는 흔히 使用되지안혓스므로 此에 依한 米價低落은 크게 期待할수 업스나 如何든 政府當局에서 幾分이라도 米價高로부터오는 威脅을緩和하려는 그點만은 看取할수잇는가한다。

他面에잇서서 現在 朝鮮事情은 米價가 特別히 日本內地보다 高騰한것은 아니지마는 貧民數가 日本內地보다 훨신만흐니만치 米價高로 呻吟하는 사람이 量으로나 質로나 尤甚한것은 識者人이 周知하는바이다。

朝鮮은 昨年凶作關係도 長期貯藏은 하지도못하엿고 短期貯藏만 하엿던바 그貯藏米는 二月末에 이미 그全部를 拂下하엿스므로 이에 貯藏米拂下에 依한 米價緩和는 不可能하게 되엿다。따라서 米價를 緩和하려면 外國産米及雜穀輸入을 圓滑하게 하는수밧게 업스므로 吾人은 本欄을通하야 屢次 朝鮮人食糧에 重大한 關係를가지고잇는 滿洲粟輸入關稅(每百斤에一圓)令이 去二月末로써 滿期가되는 機會로 滿洲粟自由輸入을 力說하여왓스나 當局의 沒理解로도 다시 一年延長을 보게되엿다。

四

從來 朝鮮內 食糧問題는 逐日 重大化하야 昨今에 이르러는 그絕頂에 達한感이 업지안타。總督府 發表에 依하야 滿洲粟輸入 狀況을 보면 五月中旬의 粟輸入은 三萬七千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萬六千五百餘石의 減少를 示하엿다。그리고 昨年十一月 以後를 累計한다면 前年同期에比하야 實로 十四萬六千九百餘石의 大減退를 보엿는데 이것은 決코 朝鮮內에 食糧이 裕足하야 이러되는 것이 아님은 昨年 凶作關係로만보아도 알수잇지마는 現在의 米價와 滿洲粟價를 比較하여볼 때에 貧民大衆이 얼마나 呻吟하는가를 切實히 알수잇는가한다。即 現在 滿洲粟價는 石二十二圓 五十錢이라는 高價를維持하거니와 이것을 前年同期十四圓七十五錢(五月平均)에 比하야 石七圓七十五錢의 暴騰을示現하엿다。그러나 現在白米價格은 昨年同期에比하야 五圓假量박게 더騰貴치안엇스니 昨今朝鮮細民이 얼마나 滿洲粟을 要求하는가를 말하여주는同時에 以上 滿洲粟輸入減少에 徵하야 그可恃한 窮狀이 如實히表現되는것이다。

中央政府의 暹羅米輸入許可內定에 對하야 總督府當局에서는 「朝鮮은 事情이 다르다」고 말하지마는 如何든 米價高의 威脅은 方今 그絕頂에 達하여잇스므로 어떠한方法으로든지 當局에서는 이威脅解除의 米價緩和政策을 斷行하여야할것이다。

伊에 國境紛爭問題

領土內國防問題에 他國意見不容許

仲裁和解手續受諾은 我國主張과同一한까닭

伊代表聲明書發表

무伊首相

【電通壽府廿四日發】二十五日早朝의 聯盟理事會에서 알로이지 伊太利代表는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 問題에對한 態度에 對하야 如左한 公式스테이트멘트를 發表하야 將來의 植民地準備의 充實强化의 自由를 明確히 留保하엿다

伊太利政府는 그 領土內의 合法的인 國防의 諸手段에對하야 何人이든지 反對의 意見을 强制하는것을 許容하지 안는다 伊太利政府가 仲裁和解手續을 受諾한것은 伊太利의 意思가 이와一致한 때문으로 이에 依하야 伊太利는 一九二八年의 條約의 諸規定에 基한 兩國政府間의 約束을 尊重하려는 希望을 表明한것이다 伊太利政府는 調停委員會의 條項에 對하야 如何한 制限도 하려고企圖하는者가 아니다 그러나 또 如何한 形式에잇서서도 右委員會가 國境問題檢討에 干涉하는 것은 同意할수업다

英國防審議會設置

【倫敦廿五日發聯合】英國本國政府는 今回 自治政府와 協議한 結果 常設英帝國國防審議會를 設定하기로 決定하고 審議會의 組織에 對하야 暫定的協定을 完了하엿다

聯盟理事會決議에 무伊首相大不滿

佛國、聯盟과絕緣코獨逸과接近?

今後態度가極注目

【電通巴里廿五日發】伊太利、에디오피아紛爭에 關한 聯盟理事會의 決議는 聯盟의 面目을 保持하는 同時에 伊太利에 實을 與한것으로 이에 依하야 그만큼 獨自의 行動을 主張해온 뭇솔리니伊首相의 今後의 對에디오피아政策에 制動機를 與케한 것으로 伊太利가 道德的으로 敗北한것은 不可蔽의 事實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佛國으로서는 그 守護神인 聯盟의 面目이 선것에 자못 安堵하고잇는 態度인데 他方 뭇솔리니伊首相은 이번 英國貿商書가 取한 伊太利案의 態度를 含하는 聯盟及英國 其他 이에 加擔한 佛國等에 對하야 자못 不滿의 비춤을 보이고 잇스므로 이것을 機會로 佛國、聯盟과 絕緣하고 獨逸에 接近하지안흘가 念慮되는바 當面의 問題로 伊太利가 墺太利의 獨立保障에 關하야 佛國諸協商國及 발칸協商國과 協力할 可能性은 去一月以來 아주 可望이 적어젓다고 悲觀的觀測을 내리고잇다

라발佛外相 獨逸訪問否定

【壽府二十四日發聯合】라발佛外相은 二十四日夜 伯林訪問에 對하야 現在에잇서서는 伯林에 赴할 豫定은업다。그러나 何如든 佛獨兩國間의 完全한 諒解가 必要한것은 말할것도업다 다만 結局의사히조흔 國家間의 接近만으로는 實現할수업슴으로서다

川岸部隊猛襲에 孫永勤遂戰死?

廿四日曉毛山溝附近의激戰에서

孫軍戰死者四百餘

【電通新京廿五日發至急報】關東軍發表=毛山溝附近의 戰鬪에 參加한 敵은 約四百인데 孫軍이 遺棄한 死體는 三百이 넘엇는데 그中에 孫永勤及그의 參謀長官 有元의 戰死死體를 發見하엿다 鹵獲品은 小拳銃二百五十 其他多數의 武器、日本側損害는 戰死將校一名、下士官一名、兵四名、重傷二名、輕傷一名이다

【電通新京廿五日發至急報】關東軍發表=川岸部隊에 屬하는 孫永勤軍討伐隊는 孫軍의 集團은 撫河庄西南二里、三屯營北方一里의 聚伏庄에잇슴을알고 또 그前位置는毛山溝(三屯營西方二里)의線에沿한 斬壕에據한것을알고 五月二十三日夜 行動을起하고二十四日새벽부터 攻擊을開始하야 此를 完全히 包圍하고 後方兵火를 集中하면서 險峻한 山地를 越하야 敵軍을 壓迫하야午後零時十分에 全혀 該高地를占領하고 이것을 殲滅하는同時에午後의 行動을 準備中이다。

그리고 日本軍에도 相當한損害가잇스나 目下調査中이다

【北平二十五日發聯合】孫軍討伐의 熱河部隊는 二十三日夜 行動을 開始하야 二十四日새벽에 三屯營一帶의 敵軍에 對하야 攻擊을 開始하엿다。三屯營方面에서는 二十四日朝以來 處處에民家의 火災를 보앗는데 아마 孫軍의 放火인모양으로 混亂에 乘하야 逃走한것으로 解釋된다

勞働者總動員 一大데로敢行!

NRA를二個年延長치안는때에

米勞組聯合會長演說

【電通華盛頓二十四日發】米國勞働組合聯合會會長그린氏는 下院豫算委員會席上에서 N·R·A의 延長에 關하야 如左히述하엿다

N·R·A를 다시 二個年 延長하야 實施하지 안흐면 全米에 亘하야 産業스트라익 勃發은 必然일러로 此際에 우리는 全國의 勞働者를 總動員하야 一大데모를敢行할터이오 境遇에 依해서는 제네스트(總罷業)로轉回할것은 勿論이다

NRA에對한 新妥協案要旨

【華盛頓二十四日發聯合】上院財政委員長 해리슨氏提出의 N·R·A二個年延長法案은 上院에서 徹底的修正을 施하야 延長期間十個月이되고 루스벨트大統領의 一枚看板도 危殆에 瀕케되엿는데 民主黨上院總務 로빈손、해리슨兩氏와는 同黨下院總務 밴즈、도튼兩氏와 會見하고 上下兩院의 立場을說明하며 意見交換을 遂하엿다 그結果法案은 實質的으로 復活하고同時에 上院의意見도 充分參酌하야 새로운妥協案을 作成하엿다 妥協案의 要旨는 如左하다

一、N·R·A를 暫定的으로 二十一個月半延長할것

一、N·R·A의 適用範圍를 純粹한「州際産業」을 除外하고 充分히「州外産業」이라고 認定된 事業만에 限할것

이라하야 N·R·A를 中心으로 한 政局의 危機는 어지간 解消되게되엿다 (寫眞은 그린氏)

今井田總監 孫大臣以下招待

今井田政務總監은 細目協定調印次로 來京한 孫其昌滿洲財政部大臣一行을 二十六日正午 白雲莊에 招待하고 午餐會를 開催할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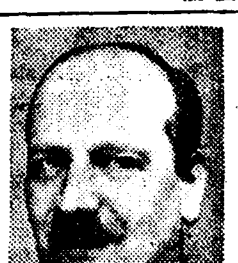
三外油會社 滿洲退去開始

【電通大連廿四日發】亞細亞、텍사스、스탠다드三石油會社의 滿洲國內의 貯油大連移轉에 着手하야 그大部分은 이미 當地에 輸送되엿다

財政危機迫頭로 프랑당內閣崩壞?

議會의開劈頭에財政獨裁權要求할해나 二十八日再開議會까지內閣持續不可能

後任首相은뷔손氏?



【電通巴里廿五日發】佛國의 프랑당內閣은 來二十八日 再開되는 議會에서 財政獨裁權을 要求하야 時局打開를 策하려고하고잇는데 內閣은 그때까지 持續하지못하고 崩壞될것이란 觀測이、有力하다 後任首相에는 現在로는 下院議員 뷔손氏가 가장 有力하야 同氏가 擧國內閣을 組織하게될것이라고 豫想되는데 同氏는 樂觀的傾向을 가진이로 그力量으로 말하더라도 千九百二十年 포앙카레內閣에 與하엿던것과가튼 權能을 享受할수잇슬는지 자못 疑問이다 財政危局을 契機로 佛國에는 새로운 政治不安時代가 來할것으로 보인다 (寫眞은 프랑당首相)

通商局昇格案 原案遂確定

豫算卅萬圓增額要求

【電通東京電話】廣田外相은 通商局을獨立하야 外局으로昇格식히기로方針을決定하고 去二十二日 外務參議會에서 諒解를求하엿는데 마침내原案의確定을보게되여서 近近幹部會에附議하야 明年度通商局豫算으로 三十萬圓의增額을要求하기로決定하엿다 同案은 現在의通商局을外務省外局으로昇格식혀 通商局長官(勅任)을두고 三部、一課를두어 通商外交의 一元化를 圖하야 强化를期하기로 하엿다

米經濟視察團 蔣介石氏會見

【電通東京二十五日發】漢口로부터 來着한 카메론·호프스團長以下 米國經濟視察團은 昨二十四日午後五時 蔣介石氏와 會見하고 約四十分에亘하야 米中經濟緊密化에 對하야 意見을交換하엿다

于學忠遂屈服

【電通二十五日發】于學忠은 모든口實로 河北省政府의 保定移轉을 拒絕하고잇든바 日本側과 의사이에 難問題가 頻出하게되여 畢竟不得已 逃避하지안흘수업다는決意를하고 昨夜中國記者에게 七月一日을 期하야移駐할 旨를言明하엿다

大使交換을機로 排日取締勵行要請

須磨總領事汪氏訪問

【電通南京廿五日發】須磨總領事는 二十五日 午後三時 鐵道部官舍에 汪精衛氏를 訪問하고 去十八日 唐有壬氏等에게 傳한日中親善促進에 關한 廣田外相의 意向을 다시 陳述하고 大使交換의 意義를 名實共히 實現하기爲해서는 各種排日取締를 勵行하는同時에 此에反한이 兩國懸案의解決及 日中國交의 積極的改善을 圖하지안흐면 안된다 特히 債務整理、航空連絡及 于學忠問題等에對하야 中國側의誠意잇는態度를 要望하지안흘수업다고 率直히 披瀝하엿다 이에對하야 汪精衛氏는 日本의「이니시어티브」에 依하야列國도 大使交換이 實現하게된것을 感謝하고 日中懸案解決에對해서는 國民政府當局으로서도 鋭意研究中인데 廣田外相의好意를 誠意로期待하고 크게 努力할작정이다 라고述하고 時餘에亘하야 여러가지懇談을한後 會見을終하엿다

領事權限擴大에 米國官邊도熱意

【電通華盛頓二十四日發】齋藤大使와 헐長官과의사이에 基礎工作이되어 日米兩國의 領事權限擴大의 交涉開始의件에對하야 華盛頓當局은 자못 熱意를가지고잇서서 大統領의 正式承認을得하는即時로 具體的交涉을 開始할模樣이다

駐米蘇大使 米國務省訪問

【電通華盛頓二十四日發】駐米蘇聯大使 트로야놉스키－氏는 今日 國務省을 訪問하고 國務省當局과 會見하야 米蘇通商關係의 改訂 擴大에關하야 米國側의 意向을 聽取하엿는데 蘇聯側으로서는 從來의 通商關係를 다시 廣範圍에 擴大하야 米蘇貿易을 圖하려는 希望을 가진모양이다

古米賣却成績

【東京電話聯合】農林省發表=昭和十年五月 農林省告示 第百五十號에依하야 實施한 政府所有古米 整理賣却成績은 如左하다

東京	一二一、四四三石六
大阪	八八、九六一、二
門司	六七、七七八、四
名古屋	六九、一五一、六
神戶	六八、一六〇、四
合計	四一五、四九五、二

人事·集會

▲鄭然基氏(江陵郡守)着任人事次 本社江陵支局來訪
▲黃龍熙氏(殖銀江陵支店長代理)着任人事次本社江陵支局來訪
▲李時榮氏(江陵專賣局長)着任人事次本社江陵支局來訪
▲金東益氏(醫師)開業人事次來社
▲東島傳八氏(退官歸國人事次來社)
▲李善氏(金泉高等普通學校敎員)見學次本社來訪
▲崔鎭斗氏(金泉高普通學校敎員)同上

一事一言

生의原理(一) 長白山人

죽기나 살기나 다 제 힘이다。興하거나 亡하거나 다 제 힘이다。남의 힘을 입으려할때에 그는 벌서 죽엇다。만일生의 必要를 가진者가잇거든 모다시 말하거니와 사람에게生의 必要가 잇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힘(力)에 기다릴수박게 업는것이다。

이에 우리는 生의 原理와方法을 探求해보자。「力」이 무엇인가。生活力이라는 이 力의 本質을 分析하는 方法으로 나아가보자。

一民族이나 一個人의 生活力의 源泉은 첫재로는 哲學에 잇다고 본다。그 民族全體까지는 몰라도 그民族의 指導的 精神分子의 一集團이 가지는 哲學如何가 그 民族의 進取와 退嬰、希望과 落膽、富와 貧을 決定한다。哲學이라함은 宇宙觀과 人生觀이다。따라서 나오는 民族興亡이다。

例를 들자면 厭世主義와 樂觀主義、個人主義와 家族主義、社會主義、民族主義、……等이 一個人이나 一民族의 生活의 方向과 色彩를 決定하는 것이다。

그러면 生에 適合한 哲學이란 어떠한 哲學일까。即 어떠한 宇宙觀과 人生觀일까。

첫재로 그것은 因果의 理를 밋는것이라야 할것이다。物質的으로 勢力이 不滅인것과 가티 人事에서도 行의 不滅을 確信하는 哲學이라야 할것이니 個人으로나 民族으로나 過去의 行의 報는 現在에 밧는것과 같이 現在의 行의 報는 未來에 밧을 것을 確信하는 것이다。現在에 「내가하는 一念一言一行」은 善이어나 惡이어나 반드시 未來에 「내게로 돌아올 報」라는 宇宙의法則을 自覺하고 確信하야 外力이나 僥倖이나를 바라지 아니하는것이 生을 求하는 者의 가진 哲學이다。偶然이나 僥倖은 이 哲學이 許하지 아니하는바이다。따라서 一種의 宿命도 없다。宇宙內에서는 잇슬수업는일이다。

副業에紙袋製造

前途有望하고 收入確實

百圓餘의資金으로

丸見屋本店 大阪市東區玉造木野町十八 振替大阪五九三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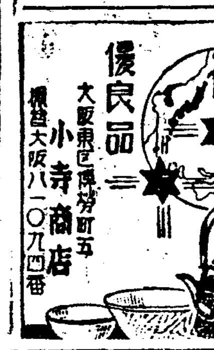
肛門病專門 치질
【藥治相談】 東光醫院 大田邑本町一丁目 電話東四九番

夏節最適한衣次
浮石織
本組合에서 左記物品을直營工場에서直接製造하야 特別廉價로奉仕的需應하오니 各位는 一次試命하소서
生明紬(生紬)春布、春紗、熟明紬、生絲等 各種染料
取引申込次第價格表進呈
慶北榮州郡浮石面昭川市
織物製造 都散賣業 浮石紡織組合
振替京城二三、六〇六番

ハギレ卸
小服地、人絹、モス。諸綿布多種品揃 商報送呈
大阪市南區瓦屋町三番丁九六 合資會社 岡田商店
電話南參八參壹 振替大阪貳六六〇七番

肥滿劑
身體搜瘦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效하야困難한분에는 藥事로申請하면 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히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朝鮮日報社 鐵原支局 電話開通九一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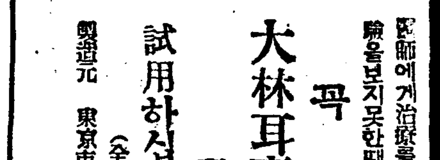
琺瑯鐵器 三星印 型錄呈 優良品

大阪東區博勞町五 小寺商店 振替大阪八一〇九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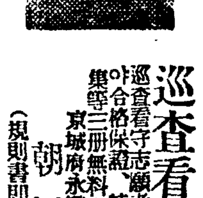
矢野 カタログ進呈

大阪西区日吉橋北 東京京橋海事局前

洋裝百貨 國豐商會

頭痛 タミン으로治療
頭痛、胸痛、月經時下腹痛、神經痛에도잘드름니다 大谷藥學博士創製 二十錢부터各藥店에잇슴
배앞흔데 腹痛タミン
參天堂株式會社

耳鼻病即効藥新發賣

醫師에게治療를밧기前이나 달븐藥으로効驗을보지못한때
꼭 最新療法인 大林耳專門藥과 鼻專門藥을 試用하십소서 (全國各藥房에서販賣) 【定價】三十錢 五十錢
東京市小石川區小日向水道町 大林製劑部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電本三〇三〇番

中古品의大廉賣

海軍省拂下防水布外套 一等品 二圓九十錢
鐵道省拂下防水布外套 一等品 一圓八十錢
鐵道省拂下紺セール純毛詰襟服 一等品 三圓八十錢
米國製直輸入船來パジャマ 一圓五十錢
紺色夏小倉服綿製 一圓四十錢
作業服 一圓五十錢
陸軍拂下改造編上靴 二圓二十錢
海軍拂下水兵短靴 一圓九十錢
名古屋市東區淸水町局前 合名會社 松山商店

當節한傳染病期와 土幕衛生을調査

不良한住居가傳染源泉이된다하야 市內市外에八千餘戶

여름철이 다아오게되야 전염병이류행될것을 예상하고이것을방지시키기위하야 경성부위생과와 사회과에서는 시내다섯곳경찰에 의뢰하야 방금각관하의 토막민(土幕民)과 불량주택거주자(不良住宅居住者)의 상황을조사하야 달라고의뢰하야 방금각서에서는 조사중인데경성부당국자의 말을들으면 대개하절의 전염병은 주거의불완전과 식물의신선치못한데서 생기는데 이들토막민은 그부력(富力)이그들로하야금완전한 평시섭생을할수업도록 할뿐이아니라생활이궁핍한만큼 손이닷지안홈으로위생에대한 관념이박약하고일단전염병자가생긴다면 의 처치도불완전하야공중보건상 위험됨이 만흠으로 이들의 생활을가급한 한도에서 개량시키고위생에대한편법과 소독에대한 상식을 보급시키라는것이라는것으로 작년가을조사에의하면 시내시외 린접지에거주하는 토막괴기라 토막류사한 불량주택의 거주민이 약팔천명인바 이들의 집단지에서 만일전염병이 발생할때는 실로큰문제라고하야 당국자는 방금대주력을하는중이다

引率者必注意!

連日不絕하는失路學童

昨今의京城을向하야輻輳하는 普校修學旅行의弊害

꼿시절이나 바람회니하야 시골손님들을 함부로흡수하고잇는 작금의서울에는 한편으로시골보통학교생도들의견학단이 련일폭주하야 관광경성의일 이색풍경을 이루고잇는데 이를따라서 가두에는 흥은려관집을 일허버리고, 방황하거나 흥은일행중을떠나서 헤매는시골생도들이 거진날마다 찌지아니하야경찰을괴롭히고잇다 천안군풍세면 풍세리(天安郡豊歲面豊歲里) 풍세보통학교사년생사십칠명은 이십오일오전일곱시에 수학려행차로 상경하여서 시내 종로서부근의 어느려관에드럿는데 그중조룡히(趙龍姬)(一二)라는 여학생이 그날밤일곱시경에 동무멧사람과 야시구경을나와다가 그만혼자떨어저서 종로네거리를 헤매고단니는것을 종로서원이띄여보고 방금그서에 보호중이며 그전날밤에도 옥구군(沃溝郡)대야공립보통학교(大野公普)생도세명이 길을일코헤매다가 역시종로서에 보호된일이잇섯다

이러케소학생견학단의 사고가 자조나는것은 인솔자의부주의라고하야 일부에서 비난이만흔동시에 견학자체에잇서서도 오륙학년상급생도는모르겟스나 삼사년급의 철업는 생도들수학려행이라고하야 서울돈다리고오는것은 실익은커녕 정신상건강상에도오히려폐해가잇다고하야 역시 물론의적이되여잇다

離婚도憤한데 家藏까지被奪

警察에說諭願提出

시내원동(苑洞)이백삼번지 조의순(趙義順)(二一)이라는 여자는작년칠월경에 김현(金鉉)이라는사나히와 혼인을해가지고 살다가 수일전에 갈라지기로되여 이십오일에 여자는사나히와 집에가서 자긔의의롱과 양복장문속을 수레에 실러가지고 오는데길에서 뜻바게훈정동(薰井洞)구십번지 조용규(趙用圭)라는 사나히가 집군들을 다리고와서 자긔는김현에게 바들빗이잇다고 하고는 그만집수데채 폭력으로빼아서가지고갓다고한다 리혼당한것도 억울한데 자긔집까지 일허버린여자는 그날오후에 종로서에 전긔조용규를걸어서 설유원을제출하엿스므로 그서에서는 방금진상을 조사중이라한다

連絡船은沈沒 乘客은救助

【尾道電話】 미도 다도진(尾道多度津)간 련락선뢰호내해상선주식회사(瀨戶內海商船會社)소유의 제칠동예환(第七東豫丸)(十一噸)은 오십여명의 승객을태우고 이십오일오전다섯시반에미도항(尾道港)을 떠나서다도진(多度津)을 향하는도중 오전여덟시오십분경에 향천현좌류도(香川縣佐柳島) 한바다에서 북일본긔선회사(北日本汽船會社)소유의만주환(滿洲丸)(三五三〇噸)과 충돌하야 동예환은 매몰되엇는데 승객과 승조원은 모다무사구조되엿다

人蔘稍六十疋盜難

이십오일 오후한시경에 시내종로일정목오번지사십이번지포목상 면천기상회(勉川綺商會)의진에 피한이침입하야 인조견사필을 훔처간자가잇다 보고를바든 종로서에서는 방금자서에 수배하고 범인을찾는중이다

物是非로衝突 百餘名農民被檢

安岳地方의旱魃騷動으로 負傷者도二十餘名

【安岳支局電話】 심한가뭄로 말미암아 황해도지방에서는 드듸여 평창한 물싸움이 버러젓다 황해도신천군로월면굴산리(信川郡蘆月面屈山里) 지주김성택(金成澤) 면농부사백여명은 이십삼일오후세시에 대거출동하야 안악군 룡순면옥정리(安岳郡龍順面玉井里) 지주림정하(林臨夏)의농감 김두경(金斗京)이가 그들만으로흘러내리고잇는 내사천(內四川)보스물을 우에서꽉막어노코 자긔네들논에만 물을대이고잇슴에분개하야 그보를헐어버리려는데 이에대항하야김두경의아들과 그들의 소작인이십여명은김성택을 막우따려서 위중하게되엇다 이급보를밧고안악경찰서에서는 경관이현장에출동하야농민백여명을 검속하고신천경찰서에서도 출동하야 일곱명을 검속하여다노코 각기엄중히 취조하는중이라한다 그런데 안악군수와그곳면장들은 쌍방을 타협시키고저 진력중이라한다

店財橫領犯二名逮捕

【扶餘】 지난오월이십사일부여서에서는 시내를배회하는 수상한청년두명을 검속취조하는 일방본적지에 조사하는중인데 봉지울 이리 대정정(大正町)에 둔 박수런(朴守連)(二一)과 영정(榮町) 중정상점점원 박대만(朴大滿)(二一)으로 수입전에 상점에서 약이백여원을가지고 나와만주등지에 가랴는것이 판명이되엿슴으로부여서에서는 엄중설유만하여 인도하엿다한다

平壤市民運動 盛大히開幕

三萬群衆이會集!

【平壤】 평양시민의명절인제팔회전평양남녀 시민대운동회는 각조합련합회주최와 본사 평양지국후원하에서 이십오일오전아홉시부터개회되엿다 대회장인기림리(箕林里) 공설운동장(公設運動場)은아츰부터사배여명 선수들과응원단이 몰려드러 대성황을일우엇는바 대회장박경석(朴經錫)씨의개회사심판부대표김만형(金晩炯)씨의경기상주의 지시가잇섯고 작년도우승팀평안배회점(平安百貨店)의 우승기반환식(優勝旗反還式)이잇슨후 남자배미경주로부터 장쾌한경긔의 막을열리엿다

소간작년의 재해를 보충할가하는 꾸준한 희망을가지고 농긔명이나되는소작인들은 일대공황에와서 소작인들을불너다가 수십일동안 소작계약을받고 잇는대이토지는 원래한간(旱乾)한곳이만큼 전소작료가 헐한것이별로업섯슴에불구하고 이번의거의전반적으로올림으로 지주측대소작인간에 충강이만호나, 워낙약자의지위에잇는 소작인들은지주의요구에불응하면 땅을내여노와라는소리에눈물을먹음고 떨리는손으로도장을찟는사람이만타고한다

作權無理更新에 四百作人은戰戰

作權剝奪을怯내여 含淚捺印

農期當한災害地進永에서

【進永】 진영지방은 작년의수해(農期)만 고대하고 잇다가 물와한재로 치명적영향을밧고 끈행이 지주가 밧구이여서 가혹난중에해매이는 극빈한농민들은 한신지주는 합부로소작료를올리금년에 다해이풍작이나되면 다고 지주에게 유리한조건을부처 ... 을일으키고잇다 그사실을들어보건대 김해군진영면(金海郡進永面)과 창원군동면(昌原郡東面)에잇는 마산부리우식(李佑植)씨의소유지약백경보(百町步)를이번에경긔도부천군 극본무삼랑(谷本茂三郎)(假名)과 인천부포긔정길(浦崎政吉)(假名)두명이공동으로매수하야 그사무원굴미무웅(堀米茂雄)(假名)외두명이 당지에

市區擴張에따라 電力供給을擴充

總電力四萬키로를目標로 唐人里發電所를擴充

오는신월이후 경성부의 시구확장을따라 현재보다사배의면적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명의 「바로메ㅡ타ㅡ」가되는전긔(電氣)의 수요가 역시맹창하는것을예상하고 경성전긔회사에서는 이번에 당인리(唐人里)발전소를일백팔십만원의 예산으로 확장하기로하야 방금공사중인데 오는 구월말까지에는 공사의완성을보이리라한다

현재경성시내에서는 전차, 동력, 전등을 사용하는데 매일평균일만팔천킬로왓트를 사용하고 그중전차만에 쓰이는 전력이 약이천킬로왓트인데 현재의 전력공급력은 당인리발전소의것이 일만「키로」이고 룡산발전소의것이 일만「키로」이고 금강산에서오는수력(水力)발전이 칠천오백「키로」에서총량이마칠천오백「키로」인데 여긔다가 다시일만이천오백「키로」의 발전력을 증가식혀 충량사만「키로」와 전력을공급하도록한다는바 현재는금강산에서 오는수전당인리의 두곳전력을 사용하고 룡산발전소는 예비로 두기까닭에 갓금정전과기타전력의 부족을 본때도 잇섯스나 압으로는 그런것이업도록 하리라한다

廿五年來初有의 忠北一帶의旱魃

井水는沽渴秧板은龜裂

【淸州】 충북의금번가뭄을보면 이미게벌써한 미지수하면 농사는 일본우려된다하며 중목도에서는 판개(灌漑)또는 내한작물(耐旱作物)등에대하야 한해대책을강구중이라한다 ... 작십미리 대한 발로 ... 양판은 구열이나서 피해가막대하며마일

日曜講話

▲貞洞教會 午前十一時 「活動하는주의말삼」金鍾宇牧師 午後八時「未定」 再興泰氏

▲尙洞教會 朝間講話「금보다더사모할성경」卞鴻圭牧師 夕間講話 基督觀 金源榮氏

▲南大門外教會 午前十一時「重生」金英珠牧師 午後八時「未定」朴泰信氏

▲同上會館 午後八時「我等과佛敎」李元順氏

▲英語教會 午後三時「大府講座」스파이맨氏

▲博文寺 午前十一時「原始佛敎의 眞諦哲學」朴李鍾氏

▲中央教會 午前十一時「復興會」金鍾斗牧師 午後八時「復興會」

▲朝鮮中央基督靑年會 午後三時「永生의保證」吳天泳氏

▲三淸洞教會 午前十一時 「未定」 牧師 午後八時「宗敎와人生」宋昌根氏

運動競技欄

賞讚할靑學의健鬪 養正連二年優勝

全朝鮮中等籠球終幕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주최와 본사운동부후원의 제오회 전조선중등교룡구대회 결승전인 양정고보(養正)대 청년회학교의 쟁패전은 이십오일오후 두시이십오분부터 시외연전구장에서열린바 청학군의활약맹렬하야 일시양정군의 아성을 위협하엿스나 드듸여 사십삼대삼십으로양정군 연이년우승하야 동대회회장언더우드(원한경)씨로부터 우승기와 맛우승배를 수여하니 이로써 황리에 종막을고하엿다

◇寫眞은 優勝한 養正高普軍

◇決勝戰

養正43 靑學30 【前17…10、後26…20】

【決勝戰】 養正高普對靑年會學校戰은 同午後二時二十五分부터審判 金鼎筆氏審判아래開始되야 結局四十三對二十으로養正優勝 (계임四十分間)

反	後	前	【養正】		【靑學】	前	後	反
6	2	2	金寧元	F	兪仁濬	0	8	2
0	0	0	白南巖	F				
1	9	7	鄭奧燮	F	徐廷釦	2	1	1
2	2	6	申宗淳	C	權重晴	3	4	2
1	4	2	方元淳	G	李鍾植	0	0	0
				G	金俊泰	0	0	0
1	2	3	韓世一	G	李泰燮	5	7	0
7	17	26				10	20	5

八哩마라손 鄭君一着

二着은申君

서울陸聯主催 第四回A마라손競走는 參加한二十二名의選手로豫定과가치 二十五日午後一時五十七分 光化門廣場을 出發歸着點으로 擧行한바 鄭壽吉君(京城)이所要時間四十八分三十八秒로一着하엿고이날의着順은다음과갓다

▲一着 鄭壽吉(京城) 四八分三八秒
▲二着 申東植(專賣) 四九分三〇秒
▲三着 金明山(自動第一) 五一分四三秒
▲四着 張壽永(白鳥) 五二分四四秒
▲五着 洪淳元(曹光) 五三分二六秒
▲六着 張立龍(養正) 五三分四四秒
▲七着 李範成(京城) 五三分五三秒
▲八着 洪世仁(商工) 五四分一〇秒
▲九着 李晟淳(專賣) 五四分一八秒
▲十着 李順玉(京城) 五六分三三秒
▲十一着 趙英一(京城) 五六分三三秒
▲十二着 金永培(京城) 五八分四四秒
▲十三着 金國培(京城) 六〇分二六秒
▲十四着 金炳基(中央) 六〇分三三秒

盛況이룬女子卓球

同德女高姜孃制覇 朴春子孃奮戰惜敗

朝鮮女子體育獎勵會主催의 第三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는 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鍾路基督敎靑年會體育館에서열린바 始終아기자기한씨ㅡ소ㅡ게임은滿場을熱狂케하드니 最後決勝戰에 드러가 同德女高普의 姜彭玉孃(三年生)이 女商出身의朴春子孃(金融組合聯合會)을 三對一로이겨서 榮譽의覇權을獲得하엿다이리하야 大會委員長尹致昊氏의祝辭가잇슨後 會長金活蘭氏로부터 入賞選手에게優勝盃와기타賞品을授與하니 同大會는이로써終幕되엿다

◇第一回戰

金大玉(梨專)2—1文龍瑛(中保)
卞先愛(女商)2—0金龍燮(家庭)
宋永福(世醫)2—0姜鳳姬(同德)

◇第二回戰

崔明淑(女商)2—1片山(金組)
李相嬉(女商)2—0方今姬(槿花)
姜彭玉(同德)2—0金敬愛(世醫)
申玉均(家庭)2—0金順琦(貞信)
李良淑(醫師)2—0張惠善(梨專)
李守蓮(中保)2—1朴桂香(貞信)
林炳淳(京保)2—1裵雲松(女高)
蔡明守(中保)2—0蔡命祚(貞信)
梁今順(金組)2—0金日今(女商)
金順伊(同德)2—0李松伍(世醫)
張孝準(京保)2—0黃明祚(梨專)
張少順(女商)2—0白華善(京保)
宋貴賢(同德)2—1姜仁玉(槿花)
南壽命(金組)2—0姜辰順(女商)
崔貞順(梨保)2—1金紅貞(槿花)
柳順男(同德)2—0孫玉順(世醫)
卞先愛(女商)2—0崔末楠(京保)
李順學(金組)2—1徐命順(女商)
李孝根(同德)2—1李元淑(梨專)
金大玉(梨保)2—0宋永福(世醫)
金泰龍(貞信)2—0鄭榮大(同德)
金顯蘭(金組)2—0李順伊(京保)
李貴男(金組)2—1韓貞玉(梨專)
洪鋼順(同德)2—1申孝媛(京保)
韓在東(女商)2—1金 男(槿花)
金順慶(金組)2—0李仁淳(貞信)
許完順(同德)2—1金七順(梨專)
姜金煥(世醫)2—0高順愛(貞信)
金明淑(梨專)2—0金貞子(京保)

◇第三回戰

李相姬(女商)2—0姜金煥(世醫)
金順慶(金組)2—0韓在東(女商)
邊恩惠(梨保)2—0金泰龍(貞信)
李良淑(敎員)2—0朴炳淳(京保)
申玉均(家庭)2—0黃龍福(中保)
柳順男(同德)2—0蔡明女(中保)
梁今順(金組)2—0宋貴賢(同德)
金順伊(同德)2—1裵少順(女商)
朴春子(金組)2—0崔貞順(梨保)
金顯蘭(金組)2—0李 學(金組)
李孝根(同德)2—0李守蓮(中保)
許完順(同德)2—1崔明淑(女商)
姜彭玉(同德)2—0金明淑(梨專)
南壽命(金組)2—0張孝準(京保)
金大玉(梨保)2—1卞先愛(女商)
李貴男(金組)2—1洪鋼順(同德)

◇第四回戰

姜彭玉(同德)2—0金順慶(金組)
梁今順(金組)1—0李良淑(醫師)
柳順男(同德)2—0南壽命(金組)
金大玉(梨保)2—1邊恩惠(梨保)
李孝根(同德)2—0金顯蘭(金組)
朴春子(金組)2—0許完順(同德)
金順伊(同德)2—0申玉均(家庭)
李貴男(金組)2—0李相嬉(女商)

◇第五回戰

姜彭玉(同德)3—0梁今順(金組)
柳順男(同德)3—0金大玉(梨保)
金順伊(同德)3—0李貴男(金組)
朴春子(金組)3—1李孝根(同德)

◇準決勝戰

姜彭玉(同德)勝…棄柳順男(同德)

(同志戰을 行할것이나 柳孃의棄權으로 決勝에)

◇決勝戰

姜彭玉(同德)3—1朴春子(金組)
(8…10、10…2、10…6、10…7)
朴春子(金組)3—2金順伊(同德)
(10…4、7…10、10…4、8…10、10…8)

實業野球리ㅡ그

鐵道4 遞信0

遞信	000	000	000	0
鐵道	001	110	100	4

專門校野球戰

齒專9 高農5

大學豫科 專門學校野球聯盟第二部第一回戰 高農對齒科醫專試合은 二十五日午後零時半부터京城球場에서 山崎 鳥原 中村三氏審判 齒科醫專先攻으로 開始

齒科	6	1	0	0	0	0	1	0	1	9
高農	4	0	0	0	2	0	0	0	0	5

醫專25 高工0

醫專對高工戰은 同午後四時부터 山谷(球) 牧野、佐田(壘)三氏審判下에 開始한바 結局25對0으로醫專勝(閉戰五時五十五分)

點得 醫203 482 005 — 25 / 高000 000 000 — 0

遠來의平醫專 城大와一對一無勝負

遠來의平壤醫專對 京城帝大豫科의 親球戰은 二十五日午后二時五十分부터淸涼里大豫球場에서 申源雨氏主審아래 大豫의어프로開始한바前半에 一對零으로大豫리ㅡ드 後半에드러가 平醫軍一點을挽回하야 結局一對一로사이조케無勝負로마치엇다 이리하야今二十六日午后二時半부터 徽文球場에서京城醫專軍과對戰할터이라한다

平醫專1 {0…1 1…0} 1大豫

東京六大學野球

法政9A 慶應5

慶應	120001000 5
法政	10000103 4A 9A

立敎 000000100 1 / 早稻田 020203101 9 十八分

九對一로 早稻田勝 閉戰二時四十八分

二十五日午後零時三十分부터 神宮球場에서 野木、片桐、藤田、宮武四氏審判、早大先攻으로開始

早大9 立敎1

府體10 京電5

府體先 002000224 0 10 / 京電 010220000 5

【東京支局電話】早、立一回戰은

今日의運動

▲實業陸上競技對抗은 午後零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平壤醫專對 京城醫專戰은 午後二時三十分부터徽文球場에서
▲中等籠球中央選手(第五日)仁商…東星、一高…道商、仁商…道商、一高…京師(午前十一時부터 第二高普코ㅡ트에서)
▲實業野球리ㅡ그》京電…府廳(午後一時)、遞信…鐵道(午後四時半)以上龍山球場에서
▲專門校野球準決勝》法專…齒專(午後零時)、醫專…高商(午後四時)以上京城球場에서

▲寫眞은 卓球大會入賞者(右로부터 姜彭玉、朴春子、金順伊、柳順男諸孃)

當選謝禮

今番本邑會議員選擧에際하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을敢히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昭和十年五月二十一日

朴龍出 孔泰煥 趙鍾奎
河奉化 裵秉震 許 湜
裵基弘 金命介

當選謝禮

地方自治制施行後第二次忠州邑會議員選擧에當하야 幸히當選의榮을蒙하얏슴은 全혀有權者各位의深厚하신同情의結果로思하고感謝不已하옵고敢히紙上으로謹謝하나이다

大和田熊 孫在亨 宮武保
鄭興熙 劉鍋龍 李宅相
池村重太郞 宋永傳 松本傳右衛門
吳基澤 洪賢基 宋丙顯
金在鉉 栗田英治

當選謝禮

謹啓 今般延安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光榮에浴하엿음을玆以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昭和十年五月二十一日
延安面協議員 張命昌

當選謝禮

永登浦邑會議員
金泰驥

當選謝禮

江景邑會議員 梁奉玉
江景邑會議員 金容琦
江景邑會議員 全養浩
江景邑會議員 丁興燮

當選謝禮

今般靈山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愛顧로當選의光榮을蒙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南談熙 金長秋
河萬浩 具範珍
李宗和 黃喆信
辛鶴成 鄭澈鎬
金在鳳

當選謝禮

謹啓 今般南原邑會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各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光榮에浴하엿삽을 玆以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昭和十年五月二十一日(當選順)

李京完 李相根 金聖圭 金弼聖 鄭爽鉉 李鴻雲 朱默台 動亮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제가 절대로 보증하는 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에서최고치료약으로써 찬양사용하며、또이것은 절대우량약일너고 그약효에대해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 도로드림것이며 「이이상가는약은업다」고하는 절대적시험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병원치료를 다해보아도효과업는 환자는하로바삐이약으로써 전치되시라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붕함

전치자속출, 례장이산갓다

山口縣山口市 古屋準吉
본인은 지난일월말경부터 림질이 발생하야, 곳사구전매소에서 상원짜리와 사원짜리를 연속복용하엿더니, 심하던증이업서지고 나어갓습니다

岐阜縣可兒郡 墨田萬司
소생이 만성림질로 발병한지 마다 귀사의 치림제로 전치하엿습니다 이번에도 재발하엿기에 역시 귀사의 치림제를 복용하야 오날까지 이주일만에, 경과가량호합니다

新潟縣中頸城郡 石田正義
본인은 림질에 걸리어 이번에 귀사의 림질약을 사용하엿삽더니 차차나어갑니다 김히사례하나이다

秋田縣平鹿郡 佐佐木雄吉
귀사의 림질약을복용후 림질은 거의보이지안습니다

鳥取縣東伯郡 谷口輝雄
림질로 고생하얏더니 복약후의 경과가 양호하야 아픔괴고롬이 개이고 보통때와 다름업시 되엿습니다

府下泉北郡 山本正香
귀사의 치림약복용한후에 제일로 고롬이멋치고 쾌차해갑니다

神戶市灘區 山村喜一
의사와 그외의약도 복용하엿습니다마는 전쾌되지도 아니하야 천지에게 귀사의 림질약이 떡 잘듯는다는 말을듯고 세병을 사다가 먹엇습니다 지금은 고롬도그치고 아픔도개여 다

香川縣三豐郡 白川 優
소생이 매독으로 고생하더니 덕분에 그후는놀분조하저서 지금엔 아조 거의 ...낫엇습니다 오직 귀사의약의 조흔덕분인줄 아옵고감사하나이다

이상은 지면에 한이잇스므로 래장의 일부를 게재함에 불과합니다 도착자의주장은 의약학상 최고권위약으로 정평이잇습니다 그절대효력은 다년간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적 전치약으로 주장하시는 근본적치료약입니다하로밧뻐 이약으로 전치하시시요

림질 별제(팔일분)팔원 약두제(팔일분)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팔원 약두제(십칠일분)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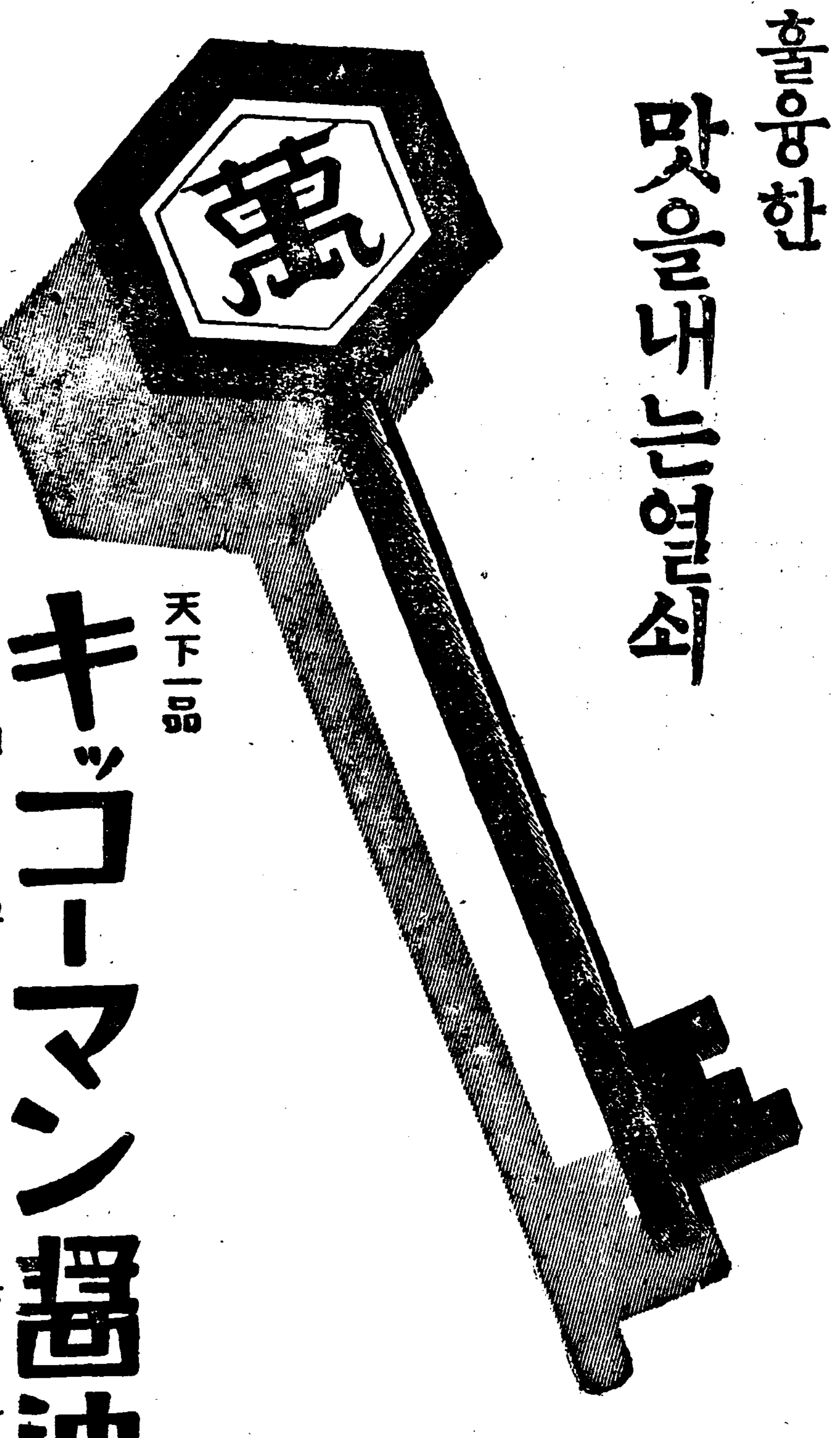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 二三六三番
振替京城 二三一五七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ツク

특약점이잇스므로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龍山漢江通 有田도락구
平壤本町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群山本町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本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鎭南浦 有田도락구
淸津本町 有田도락구
釜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榮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縣四番三 有田도락구
奉天 有田도락구
撫順東六條 有田도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 有田도락구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哈爾濱 有田도락구
大連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훌륭한 맛을내는열쇠

天下一品 キッコーマン醤油 (킷고만간장)

宮內省御用達 野田醤油株式會社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려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ノーシン 노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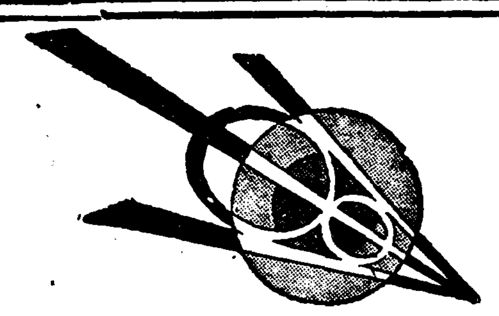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한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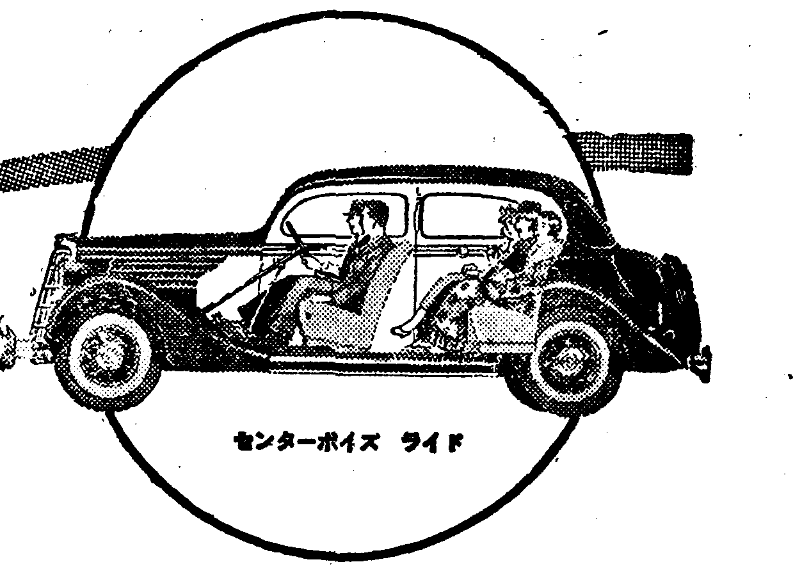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漢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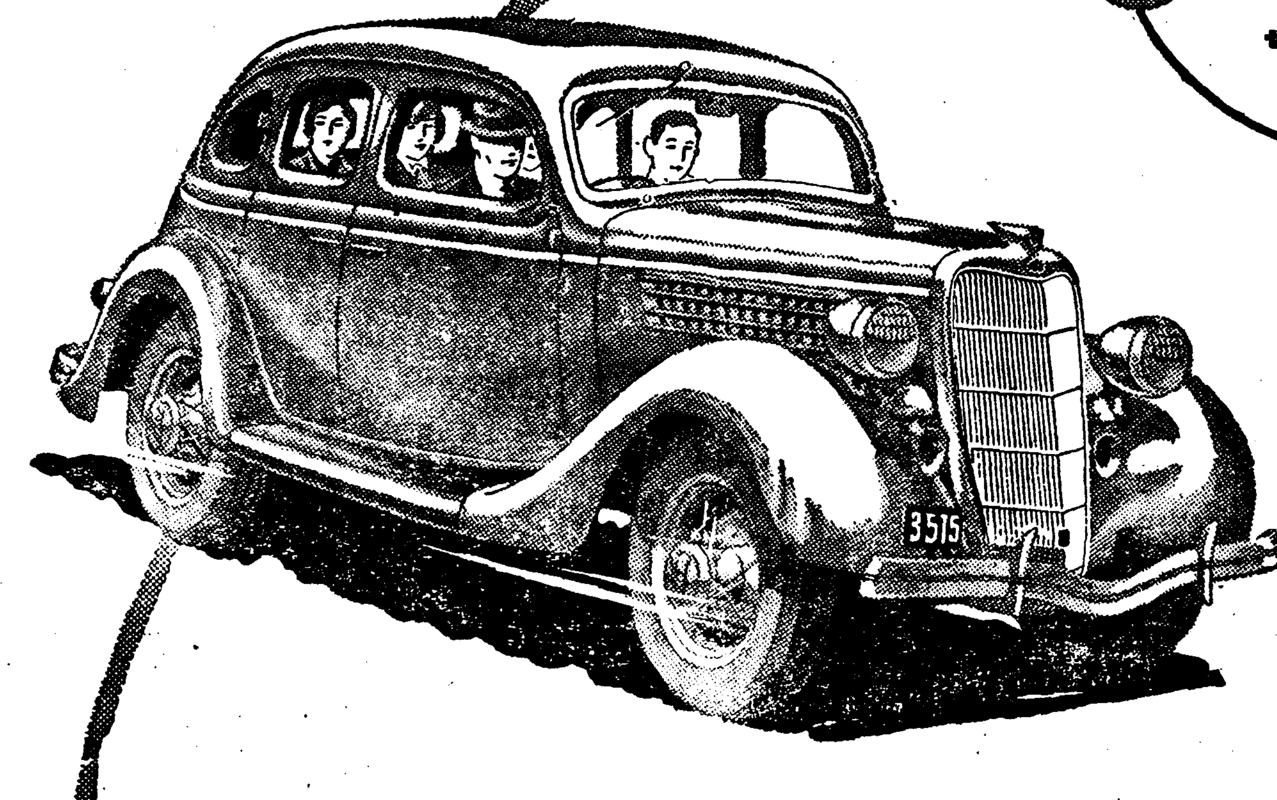
이商標에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35年型포ー드의重量分配法은 搭乘者의座席이前後車軸의中間에 安定하도록設計하여잇슴으로꼭鐵道客車의中央部에着座하여잇는것 갓치便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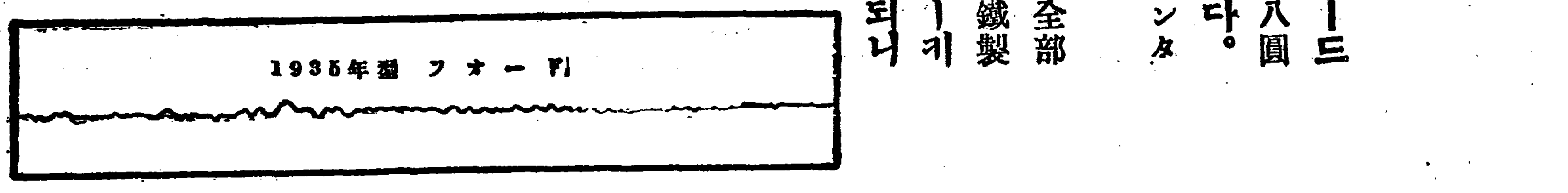
택시ー業者는流線型 포ー드로利益增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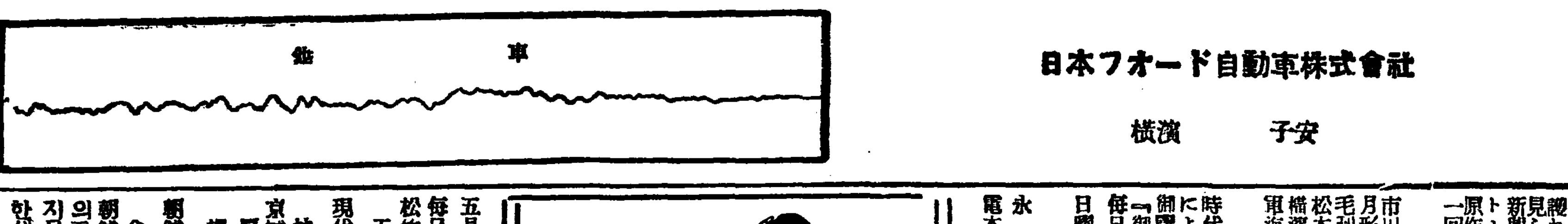
全國各地에서오는書信에依하면三五年型포ー드를使用하신택시業者諸位는他車보다一日當金八圓乃至十二圓쯤만흔收得이잇다한다。그럴일이다。流線型新포ー드는곳世人의眼目을끌고、또センターボイズ式의타는맛은甚히爽快한까닭이다。

安全이라하는點은窓、出入口、防風車等에全部破散치안흔安全硝子가使用되야잇고、또金鋼鐵製車體는鐵甲艦과갓치堅牢하다。그리하야부레ー키는더正確、其操作은容易함으로急速히停車가되니乘客도運轉手도다安心하고타게된다。

最近調査에依한즉大阪택시會社十七軒에는三五年型포ー드를使用하실時所謂三五年型의他車보다一日當平均十二圓더收入이잇다는것이다、또가소링哩數로는五가론當平均約八十哩는쉽게갈수잇스나各地의報告를綜合하여보면三五年型포ー드는五가론當八十五哩以上走破할수잇는地方이多數잇다는것이다。

最近自動車의타는맛을機械的으로測定하고 또記錄하게되엿다 下圖는同一한납분道路와 坦坦한 鋪裝道路에서試驗한 結果를表示한것





日本フォード自動車株式會社 橫濱 子安

ギター는モンタノ印
レコード、ケース는スタンダード印

發賣元 名古屋 帝國發明社

近代生活者의 가장큰缺陷 運動不足과 毒日한疲勞價値를 補要回生케하는

仁丹

再昨年來全國에 普及된仁丹容器 三千七百萬以上 이、今年은自用 包로發히活用

仁丹

愛飮家는 健强体로

補血强壯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도와인)

○葡萄酒는人體의榮養補給에不可缺의것이다 赤玉ポートワイン은多量의葡萄糖과갓치鐵分、카루슘을가진强力滋精源으로서 그効果는榮養學界의確認하는바이다。

當る廿五日特別大公開 風薫る初夏の映畫シーズンに放つ 待望の名篇!! 日本流大戰三十週年記念特別大提供の名番組突如大封切!!

御後援 大阪每日新聞支局 部文堂新聞店 盛文堂新聞店

橫濱シネマ特別大製作 大阪每日新聞社提供 朝鮮社會事業協會御推薦 岡田首相・南大將・小笠原中將、 山岡翁、御推薦 日本語解說版トーキー

北進日本

觀れ!進め!『北の生命線を』再び見られお大名畫 新興キネマ第一回時代劇オール、トーキー 原作、脚色、監督 伊丹萬作入社一回

忠次賣出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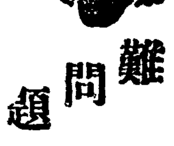
市川朝太郎入社第一回主演 月形龍之介、高津慶子、荒木忍、毛利峰子

松本泰輔大競演 橫濱シネマ特別大提供 軍海省御後援

起てよ國防に

時代劇篇、現代篇、未來篇の三篇により非常時日本の國防を皆樣に御覽に入れる大名畫です 『御注意』中學小學生時間 每日午後四時より(第一回) 日曜日 午前十時より(第一回) 午後四時より(第二回)

永樂町 電本三〇三 中央館



難問題 はれやか로解決

五月二十三日特別大興行 每日三回下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松竹키네마社特作全發聲 五所平之助監督 現代劇 新랑의잠고대 林長二郎 川崎弘子 主演

京城撮影所超特作品 原作脚色 尹白南 監督 金蘇峰 撮影 李創雨 朝鮮時代劇 洪吉童傳 金蓮實 金振門 主演

朝鮮映畫帝王篇 朝鮮映畫俳優陣의五百餘名動員 우리들이아즉까지못보든撮影技術古代衣裳괴廣壯한셋트! 여러분의渴望하시든映畫가完成되여突然히未曾有의大傑作品이나왓슴니다

◇豫告 병가루의鐵骨兵

仁寺洞 電光二六二 朝鮮劇場

延燒四方三十里로 平南模範林遂鎭火
原因은구렁이잡고山神에感謝祭지내다가
損害額은僅少·六萬圓

【平壤】이십일일부터 이십삼일까지의 삼일간오십시간반동안에 사방삼십여리를 소실한양덕평남도유림(陽德平南道有林)의대산화는 일천여명의 필사의진화로이십삼일오후다섯시경 간신히불을잡엇는데 지금까지 판명된 피해는 연소구역(延燒區域)은寡백여정보에 밋첫고 이구역안에잇든 축재삼만내지삼오마척제(尺締)도소실되엿스나 손해는비교적적어 륙만원이라고한다 그리유는활엽(活葉)수림은 대체로 수간(樹幹)이 타지안엇기때문에 다시발아(發芽)를할수잇다고 보는때문이나 화재전과가 되려면 금후십오년을 요하는터이며송수림(松樹林)은 전멸햇다고보는터인데 면견(年見)산림과장은이십사일피해지를답사키로되엿다그리고출화의원인은구룡각(九龍閣)에서십여정 떠러저잇는 산록에거주하는 민유지 목탄(木炭)제조업자인 로파모(某)(六○)가십구일구렁이(大蛇)를 잡아서 산원에파뭇엇는데 이것은 산신(山神)의도아줌이라고하야 깃버서 산신에게 감사제를 지내고그불을부주의하기때문이라한다

成川에도大山火 三十町步를燒失

이십일일오후세시경면견(年見)평남산림과장이 양덕산화를진화코저 급행중성천금강(城川金剛)부근국유림에서도 홀연이화염을 던혀 라고잇스므로 부락민들을 소집하여 진화에진력한결과 동일오후일곱시삼십분완전히소화되엿다 발화원인은불명하며 손해는삼십정보에달하여 피해액도상당히만흘것으로 추측된다고한다

慈善家尹炳奎氏 頌德碑를竪立

【瑞山】경성회동구십번지윤병규(花洞九○尹炳奎)씨는 인후독실하야 서산에거주할시는물론지금까지도 매년춘궁과명절때에반듯이빈민에게 백미일두혹은 이두식 분급하야 밥곱는그들을구제하며 어떤지주는지추수시에소작인에게서색조(色租)이두식을바다서간추인(看秋人)의보수로주는것을 일체폐지하고 씨가단독으로추수인에게 보수를 지불하며출포비(出浦費)로매두락일두식소작인에게서밧는것을 일체 폐지한외에 소작인들은 외인이라도춘궁에조곡농량(種穀農糧)등요청에의하야 일푼의리자도 업시대부하는등 자선에경탄할 배마암으로 수년전부터몽혜(蒙惠)하는소작인들은 일반인사의 발긔로 씨의송덕비(頌德碑)를세워그 특지를 맹포코자 화책하얏스나 이를탐지한 씨는절대 제지하야 이래수행치못하고 지내오든바년부년 씨의시혜는 더욱고조되야감으로 이를참지못하야 서산읍내유지제씨의발긔로 씨의송덕비를세웟다고한다

『뻐스』電車區改正

【平壤】평양대안선교리(船橋里)의발전을따라 이방면의전차와뻐스의리용도중가되여 전번부회에서 전과관계조사위원회의보고에의하여 선교리영제교(永濟橋)까지『뻐스』를련장하여 교통망을확대키로하엿는데 실현은뻐스신차주문중하여 산수(山手)평천리(平川里)에중차하는동시에 칠월일일부터 실시케되엿다 또한 사동전차선로는 비행대입구(飛行隊入口)까지 시내선(市內線)과 동일요금을밧기로 료금을개정키로되엿다한다

交通事故二件 四名이重輕傷

【咸興】지난이십사일에함흥시내에동시간에 두건의교통사고가발생되엿다 동일오전열시반 함흥부대화정북선탁시소유 함남제일천오십이호자동차를『플래시』운전수 김성수(金成洙)가 조종하고 함흥역을향하여 질주하는도중대화정이정목(大和町二丁目)북곡상회(北谷商會)압까지 이르럿슬때에 동상회압헤서화물자동차에화물을 적재작업중이던 동상회고원 지천성부(池添盛夫)와충돌되여동인의 두부기타에치료십오일을요할경상을입혓고 역시동시각중앙탁시(中央)소유함남제일천사십오호자동차를운전수박룡순(朴龍順)이가 승객삼인을태우고 함흥만세교(萬歲橋)상을 룡과하든도중동교상에서 함흥으로향하여 오든녀자삼명과 충돌하여삼명도다경상을 당하엿다고한다

新豐에電話開通

【熙川】평북희천군신풍면신풍시(熙川郡新豐面新豐市)는 이백여호가거주하는 소도시나 각관청과 모든기관이구비하고 우편소까지 잇지만은전화선이업서서일반은 유감이던바 지난오월일일부터전화선신설공사에 착수하야지난십팔일에 공사가 준공되여일반에게 편리를주리라한다

小井里繁榮會【小井里】

지난오월경에 경부선소정리에서는 지방발전책을 강구키위하야 지방유지회에서 번영회를조직한바 임원은다음과가티선정하엿다한다

會長―市川入太郎 副會長―李承圭 理事―金在旭 上原良門、幹事―崔完植 孫炳基 崔炳甲 孫永 金學允外基十人

瑞和體育會定總【自福】

룡강군서화면 자복시(龍岡郡瑞和面自福市)에잇는 서화체육회에서는 지난십칠일에당지조향의원(朝香醫院)에서림시의장 조덕윤(趙德潤)씨사회하에 제십일회정긔총회를 개최하고좌긔안건을토의 결정하엿다한다

一、面民大運動會開催의件
一、會務擴張의件
一、任員改選의件

◇新任任員▲會長李吉[?] 副會長[?] 同[?] 會計張[?] 監査朴有山 外[?]

飢餓의慘景보고 七十翁纏足投身
살길차저流離타失望하고서
絕頂에達한春窮寧遠

【寧遠】련하절을당도하엿스나한발은여전히계속되고 곡가조차폭등할뿐이여서 춘에의녕원에는말못할 참극이 속출하는중지난이일밤에는 자수로냥족을 결박하고 구비처흐르는냇물에 뛰여들어자살을단행한 칠순노옹이잇다 그는 원평녕원군성룡면장산리(寧遠郡成龍面長山里)에사는 신태석(申泰錫)(七○)으로 작년흉작을맛나때롱늘당하고 초근녹피로 근근히련명하다가그것조차떠러저서 세명의가족을다리고지난 평북강계(江界)로면으로 류리의길을떠나갓스나 그곳에서도주린 창자를채울길이업서 다시금고향으로차저들엇스나 쌀한되살돈이업고 풋나물조차채진되야가족의굶주린양은 참아볼수업서 그날밤술그머니 냇가에나아가맛던 감발풀어자수로 량족을동이고 익수자살을 한것이라는데 어지 세식구의참상은 참아볼수 업다고한다

着着具體化하는 釜山棧橋改造案
明年度豫算에編入?

【釜山】부산잔교(棧橋)개조안이 근근결정을 보게되엿슴으로 지난이십사일 철도국좌등(佐藤)영업과장이 래부하야 관계방면과 가티 예정된 제일잔교(第一棧橋)북쪽을 중심으로실지시찰을 하엿다는데 명년가을에 취항될 대형관부련락선은이잔교를 개조하지안으면 아니된다는관계로 급히 개조하여야된다는데 명년도예산에 편입하기때문에 내정이되여실시조사를 한것이라고한다 당국의입장을매우명확히한다는데 하주로는상당히 맛는다는 바일반다수히 해청하기를바란다고한다

朴達模氏美擧【遂安】

황해도 수안군천곡면쌍원시(黃海道遂安郡泉谷面雙院市)박련진(朴鍊鎭)씨는자선사업에 만흔공헌을하여오든바 지난오월십팔일자로 귀부친진갑(進甲)을 귀념으로면내극빈자 오십사인분 호세총액사십오원육십일전을 대납하엿스므로일반의 칭송은 자자한다고한다

食刀強盜出現【雲田】

경의선운전(京義線雲田)지방에는강도의출몰이 빈번하야 지방민심은흉흉하게 하든바 요사이에또한건의강도사건이 생기엿다 정주군대전면 운전동 (定州郡大田面雲田洞)일백십오번지 김천금(金千金)의집에 지난이십삼일오후십일시반경에 이십세가량되여보이는 검은양복을 닙은청년강도한명이 식도를들고 침입하야주인을 위협하고 현금십오원을강탈도주하엿다한다 이급보를접한소관 운전경찰관 주재소에서는정주본서의 응원을청하야 방금범인수사에 활동중이라한다

本報神戶支局서 漢詩大會開催

【神戶】본보신호지국에서는관서지방에 산재하여잇는 한문학자(漢文學者)들을모아 하로동안유쾌히소창하기위하야 특히오는 륙월이일오전 진양신을가려 관서한시대회(關西漢詩大會)를 오는 륙월이일오전십시부터 경치조흔 청곡산(靑谷山)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방금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벌서부터 신입서가 답지하는것을보아 당일의성황을 예긔한다는바 시제와 압운은 다음과갓다고한다

「詩題」「綠陰」「押」[?]

江西地方에도 小作爭議激增

【江西】평남강서지방에서도농지령실시이후 룡연소작 쟁의가격증하야 군소작위원회에 조정신청된것이 삼십사건이며 그중에서조정된건수는 십이건이라고하는데아직도 구두로 신청한것이 십이건이고 서면으로 진정한것이 이십삼건이라한다

苔灘體育會定總【苔灘】

황해도태탄체육회에서는 이십삼일에면사무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개최하고 좌긔임원을 선정하엿는바 결의사항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 李相徹 副會長 田允鎭 會計 張德均 書記 崔承澤 玉工植 評議員 朴東勳 評議 員 曹甫業 李亨來 崔鎭璿 金容得 趙澤寬 顧問 李承會 崔樹成 管原久 姚文邦

決議事項 蹴球大會及 籠球大會開催의件

地方人事

▲金贊善氏(安州私立維新學校長) 新任人事次本報安州支局來訪
▲林鍾六氏(前同上)辭任人事次同上
▲三上由太郞氏 (沃川金融組合理事) 赴任人事次本報沃川支局來訪
▲林良助之氏 (永同郡市金融組合理事) 轉勤人事次本報沃川支局來訪

通川郡當局者의 奇怪한"防盜政策"
土垣과、木柵을獎勵한다고서
草籬만보면限死破壞

【通川】흙담(土墻)과 목책(木柵)을장려한답시고 이미건조한바자(草籬)와립목(立木)을닥치는대로·파괴하는 언어도단의군주사와면서긔 나으리들이잇다 최근통천군청 에서는 군내각면사무소와 협력하야가지고 강철으로 항상을 극도할인지 전긔와가티흙담과목책을 민간에 장려하고잇는바 소위장려원인 그들군청원면서긔들은 농촌으로 단니며바자만보면 몰문곡직하고 파괴한다는기괴한 망동을 감행하야조석의끼니도 변변치못한세농민측에서는 비난과원성이 충천하고잇다한다

歙谷端午노리

강원도 협곡에서는오는음력오월단오를기하야오륙량일간협곡소방조주최와본보협곡지국후원하에 각희、궁술대회를 개최할터이라는데 일반선수의만흔참가를바란다고한다

洛東沙防工事 駐在員打合會

【釜山】경상남도에서는 락동강류역사방공사(洛東江流域砂防工事)실시에관한 구체적 협의를하기위하야 지난 이십삼、사량일간에 사방주재원 타합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튼사항을 협의하얏다한다

一、朝鮮砂防工事築令에依한土地指定에關한件
二、洛東江流域砂防事業夫役에關한件
三、砂防指定地調書作成에關한件
四、砂防地의測量及圖面作成에關한件
五、事業實施에關한件
六、洛東江流域砂防事業에關한件
七、洛東江流域初[?]荒廢林野復舊事業實施에關한件

朴女史人情美談
重態의洞里病人을 治療費주워救出

【鎭南浦】그리 넉넉지도 못한 녀자의몸으로 동리사람의 가긍한 병상을보고 륙십원의 금액을희사한인정미담=진남포비석리(碑石里)이백이십오번지 박로헌(朴魯憲)(三一)은 부내토목국(土木局)에서 품파리를하여 그날그날의 생활을 하든바 불행이도 작년 오월중순부터 병마에잡혀조석으로 먹는것도업거니와 병은점점위독하게되엿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을비관하고 수차나자살까지 하려하엿든바 이소문을드른동리박춘도(朴春道)(三一)란녀자는 현금륙십원을주어 부내삼화의원(三和醫院)에 입원치료케하엿든바 하날도무심치안흔지라 동원장김양식(金養植)씨도극력치료한결과 병은완쾌되여근일퇴원하리라는데 본인은물론이려니와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信聖校生音樂 本報支局後援

【宣川】선천신성학교에서는 오는륙월일일 오후팔시 동교대강당에서 학생음악대회를 본보선천지국과 동아일보선천지국후원하에개최한다는바 지방인사의 만흔 래청을 바란다고한다

各郡面協議員 選擧結果發表

牙山郡

▲溫陽面 閔丙禹 古舘福太郞 趙炳國 深谷定良 朴寅和 本田定太郞 李德永 金漢濟 李志相 金榮植 李英燮 吉田治平
▲松岳面 李用勳 金昌權 李用瓘 李範植 李伯善 禹圭弼 姜鳳周 李用元 姜泰沆 安炳郁
▲排芳面 張倫植 韓潤洙 孟用燮 李鍾滿 許均 郭在寬 李達善 金英曾 玄應周 沈仁澤
▲湯井面 李奎鐸 柳基完 李祚信 金漢益 孫徹基 李成旭 李元榮 金正爽 崔順七 鄭圭常
▲遁岐面 李哲熙 崔文式 洪淳榮 吳鳳煥 李弼華 李薩仁 任公益 李俊泳 李用麟 蔡洙格
▲陰峯面 洪任漢 金顯斗 鄭南秀 南鳳熙 李奎炯 李大永 李殷永 金承培 朴勝憲 沈龍鎭
▲屯浦面 尹致昞 成煥文 林在和 洪昌裕 車鎭奎 韓台東 李敗植 金英均 孔斗烈 申泰熙
▲靈仁面 許壁 韓廷敎 李相熙 金敬式 任鼎奎 尹瑛儀 田代猛夫 鄭憲祖 李晶求 金相弼
▲仙掌面 富樫周太郞 兪致昭 李聖雨 李鄂來 徐廷泰 沈燦洙 朴炳喆 韓徵錫 金在敎 金德仁
▲道高面 南相甲 金根基 吳允泳 金永起 松永平一郞 姜泰彰 徐廷昱 林鍾善 洪淳伯 金永九
▲新昌面 曾木福藏 李德九 元之勳 金東熙 朴準衡 吳賢格 吳斗榮 南基豊 南廷斗 金成泰
▲仁州面 洪宗裕 姜彰善 李鍾益 金道經 鄭寅熙 李錫雨 洪完錫 池錫範 韓基喆 韓台東

沃川郡

▲沃川面 李穗泰 大島三男 松永雄太郞 全應鎬 宋在昊 李根浩 李允穀 金奎熙 郭墾洙 宋玩洙
▲東二面 鄭求衡 朴哲鎬 任德準 李敎聖 吳在寬 成在鎬 任亨宰 金基燮 黃哲河 鄭仁浴
▲安南面 金時中 庾東喆 庾鳳鉉 鄭秉益 千二源 趙德福 金佐熙 金洪烈 金榮根 周正玉
▲安內面 鄭芝浴 魚國善 郝璣熙 陸相熙 金在璣 李建台 金錄鉉 曹秉煥 朴晉欽
▲靑城面 宋貞憲 李在根 安星浩 金般默 朴盛夏 陸鍾元 全月龍 辛孝根 徐志永 陳厚鍾 全俊龍 姜在渭
▲靑山面 李玉成 尹奎炳 安錫九 志賀貪次 金搾燮 張相承 元貞富 金錄洙 柳德秀 魯洙 林鳳勳 黃義益
▲伊院面 姜文會 金昌烈 姜信九 姜山玉 金泳鎬 鄭一厚 趙昇九 金秉郁 郭德載 郭台鉉 金時煉 姜冕會
▲郡西面 車再鼎 張應斗 金敬熙 金準培 柳錫九 琴榮安 宋泰洙 朴相男 李錫鎬 韓用楨
▲郡北面 金顯泰 宋秉翊 朴正緖 李獻洙 朴持鴻 金永泰 金光春 李元永 柳寅祚 趙重九

昌原郡

▲龜浦面 李任洙 金相東 裵弼運 具璟會 姜信驥 鄭千鎬 盧斗七 金度完 尹奉根 金永鶴 崔榮範 姜炯祐
▲鎭東面 文漢爽 林采斗 朴榮七 李琮雨 李輿鉉 林極平 徐潤成 金瑨瑩 裵正鍾 鄭基鍾
▲鎭田面 李萬甲 朴漢鉉 李奎守 權五成 卞相瑢 朴漢柱 權五鳳 姜濬永 卞相歡 金宗箴
▲鎭北面 吳會根 畑田五郞 李永貞 千鳳秀 鄭漢福 金秀先 吳永 黃鍾漢 李乙宰 張基相 李秀先
▲內西面 白用浩 徐相台 夏目勇 朴華俊 盧琪洙 林鍾麟 鄭彰錫 崔炳頭 崔祖模 金晶祚
▲北面 李桂祚 曺成鎬 金憲圭 李一煥 曺富烈 黃相福 辛容柱 文小坤 孫圭壽 鄭文朝 金進坤 張洪龍
▲東面 鄭昌玉 朴石煥 崔宇錫 朴且坤 金龍範 元佰壽 山本貞彦 金宰河 金炳亮 金運源 黃在恒 張斗鼎
▲上南面 曺富誠 竹村櫃治郞 金李道 朴海鎭 金麟根 梅田治郞 安敎彰 黃義根 盧埔洙 黃右性
▲熊南面 李相百 朴萬祚 孫琪泰 崔太守 李起榮 村井政信 陳隣奎 洪希守 金定鑛 黃錡
▲熊川面 朱基讚 崔鳳用 趙鍾周 盧桂芝 金鳳植 趙性勳 梁文煥 李在浩 金德龍 北山虎治
▲天加面 太俊弘 姜紀中 金晋浩 金漢奎 河東晋 崔寶洙 李相潤 朴南燦 李相大 金東贊
▲熊東面 李奎祚 朴南極 裵健守 申珍奎 朴時暄 裵翊祚 鄭京守 裵龍八 尹學祚 池水局

金海郡

▲進永面 盧相善 盧鍾必 馬場崎德治 土井秀邦 宋賢用 具本石 松本久廿一 齊柳福吉 齊藤敬一 金廷泰 姜元錫 金相漢
▲進禮面 馬場崎相次 朴泳善 張炳琇 竹村棟則 宋世勳 宋尙學 宋世卿 郭太坤 徐正文 成泰鎬
▲二北面 盧佐容 飯田粒一 朴甲得 李平學 田村右左二 宋守學 權海龍 鄭斗恢 鄭奎允 金通達
▲大渚面 今井榮次郞 卞榮斗 韓斗煥 川野吉民 米倉平七 村東弘之 冲幸輔 山田七郞 安啓遠

寧邊郡

▲寧邊面 車鳳儀 荻尾一平 洪在楨 康應玉 金東炘 淺野秀造 金秉逸 明桂植 韓慶載 朴瑞文 金奎榮 金永守 陳英局

泗川郡

▲昆陽面 崔雲龍 文椞武 文聲根 韓致善 賓鎭弘 趙臣國 趙昌來 姜文學 金貞榮 申成均
▲昆明面 李章辰 金相浩 姜鎔馨 姜台鉉 姜允鉉 姜弘燮 李明長 柳有宗 梶田收一 李弼九
▲西浦面 崔搢斗 鄭燦商 鄭燦會 鄭吉義 趙鍾沉 朱南律 金珠洪 柳宗烈 黃河泳 李宅珪
▲辰橋面 李康灝 金泰郁 金炳淑 金廷炫 李咨正 李鍾煥 金昌海 鄭宗馴 朴相儀 古隱發一郞
▲泗川面 鄭甲植 黃鐵守 鄭祺柱 柳承萬 張駅植 姜錫祚 信達谷淸造 藤田善吉 山內敏市 木村要次郞
▲正東面 朴性錄 李根培 朴茂根 崔洙卿 崔孝弼 姜梓炳 吳元浩 鄭允鎔 橫尾欣 崔時敏
▲泗南面 足立長作 張啓相 崔瓚敏 崔衍潤 吳尙泳 崔向希 崔有晉 李起浩 李池英 李衡秀
▲龍見面 森竹五郞 卞鶴燮 申申照 李長植 趙瑀植 李桂洪 趙性浩 姜宗善 朴大承 申洪圭
▲泗南陽面 姜大厚 金宗賀 浦大一 李學來 金相琪 李泰秀 申炳祚 鄭錫圭 朴成太 金其永

利原郡

▲把洞面 崔河南 辛承鳳 朱炳煒 李長根 李芝豊 李喆洙 金在祚 太田房藏 日高辛甲濬

密陽郡

▲府北面 申燉均 李曉衡 安秉熙 朴鍾在 李鍾元 薛鎭貴 朴然在 李甸遂 金致洛 趙克俊 金丙坤 嚴鍾潤
▲上東面 高鎭洛 權錫重 李尙揆 孝性烈 安範遠 韓用慶 朴炳穆 金孝淳 全文植 孫顯鉉
▲山外面 白彰基 安琪遠 朴秀海 李哲九 梁瑞晋 權占相 孫祚鉄 孫慶鎬 安龍洙 孫振相
▲山內面 李元述 蔣任植 李斗基 孫龍旧 申鉉旭 李未尙 朴升錄 安井煥 李士根 孫振東 許鉛
▲丹場面 李順衡 金達守 金鍾圭 鄭基三 李應雨 金鍾遠 吳晟模 朴天旭 金昊鉉 金容正 張永春
▲三浪津面 丁頑倫 李起鎬 吳國絢 林昌圭 柳孝俊 堀淳一 川波藤太郞 金秉禮 安鍾默 李泰植 加藤恒夫 趙亨植
▲上南面 筒井嘉平 平城貞藏 李璣熙 李秉憲 松本守太郞 崔赫敎 曹亨均 黃應水 李正奎 金三生 金炳輝 金光鉉
▲下南面 鄭海龍 李觀寬 金璟浩 李厚中 崔玉賢 松下春男 金鎔璜 閔雨植 金顯永 南賢一郞 西谷嘉重郞 蔣晋植
▲初同面 金瀅沐 朴庚漢 孔濟秀 朴熙元 安秉浩 金鍾玕 曺寅東 朴敏煥 鄭永福 李根秀 約曾一出 趙興守
▲武安面 雪村琴市 朴凿
▲淸道面 金亨源 金善源 金武源 朴斗載 金在珠 朴宗鉉 金泰誠 金鳳三 李元喆 金麒奉

咸平郡

▲岩多面 朴云相 金永大 趙炳禹 徐炳基 尹相曄 林鍾述 丁允甫 金景浩 李啓哲 池奇彥

井邑郡

▲新泰仁面 趙楨顯 姜大順 姜漢秀 李俊 李敏老 朴榮緖 赤木峰太郞 片岡象松 西村三男 福田正夫 松下松太郞 樋川丑太郞
▲泰仁面 宋鷹鎬 鄭仁述 金富坤 宋直相 殷淨燁 宋洙錫 金鎬浚 金鎭水 金鎭坤 石田登美
▲甘谷面 李熙冕 渡邊岩太郞 藤田春次郞 愈錫先 金吉興 金先弼 金致兼 柳錫南 鄭昌玉 李鶴善 柳碩斗 權敏三
▲梨坪面 宋昌燮 金洛基 金漢鎬 金吉洙 金承洛 崔明仲 金鎭烋 金光洛 金鎭炯
▲瓮東面 鄭鎭麒 李判龍 權五福 李其信 金判燮 金泳奎 權泰釧 殷滁同 金泳植 金壬坤
▲山外面 金栢洛 白河鉉 金貢中 金五象 宋榮祚 李東夏 李沃金 劉正昌
▲七寶面 權寧玉 金綜燕 宋公顯 李廷雨 洪俊杓 張榮洙 金道述 金鍾遠 金洛璜 金永佑
▲山內面 白雲起 李載植 劉載翊 柳在春 邊奎浩 裵基禎 金時中 金相基 金桂鎬

禮山 申不出漫談大會
▲時日 五月二十八、九兩日間
▲場所 禮山假設劇場
◇主催 朝鮮日報社禮山支局
◇後援 永昌商店

宣川 信聖學生音樂會
▲時日 六月一日下午八時
▲場所 信聖學校大講堂
◇主催 信聖學校
◇後援 朝鮮、東亞兩宣川支局

濟州 全濟州青年蹴球戰
▲時日 六月二日午前八時
▲場所 濟州邑光陽球場
◇主催 朝鮮日報濟州支局
◇後援 東亞、中央兩濟州支局

平壤 全朝鮮中等個人庭球
▲時日 六月十五日午前十時
▲場所 崇實專門『코-트』
◇主催 崇實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龍仁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出發=六月八日朝龍仁驛 到着=六月十四日夕同驛
▲會費 二十圓 (往復汽車宿泊食事全部)
◇主催 朝鮮日報龍仁支局
◇後援 京東鐵道龍仁驛

當選謝禮
不肯 今般 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張光淳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 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安基榮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向井最一 代田繁治 直野良平 今村覺次郞 村田孚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 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金泰性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宋雲學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 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宋在鵬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 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宋炳喆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 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金泰勳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 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金澤圭

當選謝禮
不肯 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 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이시압기로 玆敢紙上을通하야 삼가히替謝하나이다
吉木善介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鄭旭鉉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生田鐵造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吉岡久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金鍾燮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中川哲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小谷益次郞

不肯今般仁川府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은全혀有權者諸位의深厚한同情이시압기로玆敢紙上을通하야삼가히替謝하나이다
金允福

黃潤

當選謝禮 (無順)
泗川面協議會員 鄭甲植 同 黃鐵守 同 鄭駅柱 同 柳承萬 (二名頑道) 同 張駅植 同 姜錫祚 同 木村要次郞 同 信達谷淸造

當選謝禮
今般安州邑會議員選擧의際에 有權者僉位와 地方有志諸氏의聲援으로本人等이當選되얏사압기玆에 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金鎭泓 李東行 尹桓 金秉奎 徐俊植 (가나다順)

當選謝禮
今回 統營邑會議員選擧에有權者各位의深厚한同情과 援助에依하야當選되엿사옵기에玆에謝禮하옵고、今後誠心誠意統營邑發展을爲하야 盡力하겟사오니 指導鞭撻하야주심을 伏祝하나이다
昭和十年五月二十一日
統營邑會議員 (無順)
兒玉鹿一 衛藤竹彥 許基燁 卓應朝 徐炳斗 谷本寅吉 山根才吉 鄭奉律 嘉戶孫十 永富陽一 島村新平 林轍圭 李太奉 鄭箕淳